참고 2.

기업부문 리스크의 업종별 차별화 현황 및 시사점[40]

최근 반도체, 조선 등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업종은 일시적 또는 구조적 요인 등으로 부진을 겪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업부문 리스크의 업종별 차별화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업황 부진 업종의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늠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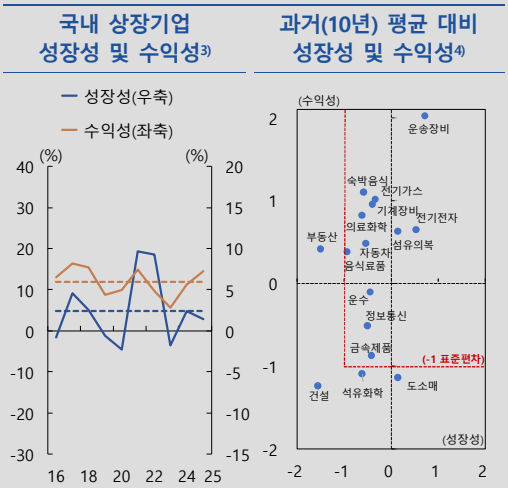
업종별 재무건전성 현황

업종 간 업황 차별화

2025년중 국내 기업부문[41]의 실적을 살펴보면, 대체로 과거(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성장성(매출액증가율)은 과거 평균을 소폭 하회하였으나,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은 이를 소폭 상회하였다. 다만, 업종별로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2025년중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 업종의 2025년중 성장성과 수익성을 과거 평균과 비교한 결과, 운송장비, 전기전자 등의 업종은 두 지표 모두 과거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으나 건설, 석유화학, 금속제품 등의 업종에서는 모두 과거 평균을 크게 하회하였다. 또한 도소매의 경우 성장성은 과거 평균 대비 양호하였으나 수익성이 크게 부진하였으며, 부동산은 성장성의 저하가 두드러졌다(참고 2-1).

참고 2-1. 기업부문 성장성[1] 및 수익성[2]



주: 1) 매출액증가율 기준
2)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
3) 점선은 최근 10년 평균
4) 업종별 2025년 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0년 평균 대비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를 표준편차 단위로 환산하여 표시
자료: VALUE Search

취약 업종 부진은 주로 구조적 요인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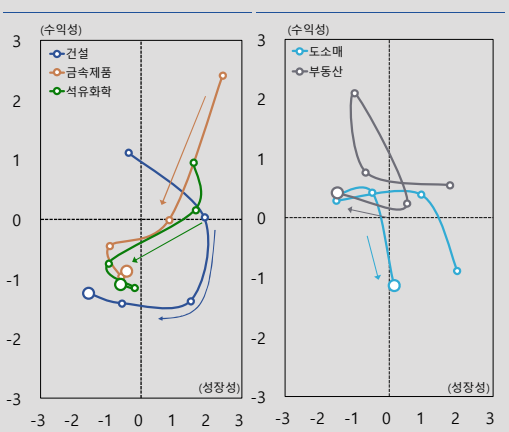
2025년중 성장성 또는 수익성이 과거 평균 대비 크게 부진한 업종들[42]의 지난 5년간 실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건설, 금속제품 및 석유화학 등 2025년중 성장·수익성이 모두 부진했던 업종(이하 '취약 업종')의 실적은 2021~2022년중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 최근 2~3년간 성장·수익성이 연속으로 과거 평균 대비 낮은 모습을 보이는 등 부진의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소매 및

---

[40] 본고는 이준성 · 남지윤(안정분석팀)이 작성, 이정연(금융안정기획부장) · 문용필(안정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41] 본고에서는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속보성 있는 분석이 가능한 상장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5년 4/4분기말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중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총 2,854개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외감기업 등 더 큰 표본을 활용한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2] 건설, 석유화학, 도소매, 부동산 업종은 최근 성장성 또는 수익성 지표의 부진 정도가 큰(최근 10년 평균을 1표준편차 이상 하회)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속제품의 경우 상기 업종만큼은 아니지만 업황 부진의 정도가 상당하고 성장성과 수익성이 모두 부진하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부동산(이하 '주의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 부진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성장성 또는 수익성 중 한 지표가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수년간에 걸쳐 기업 실적이 정체되거나 소폭의 부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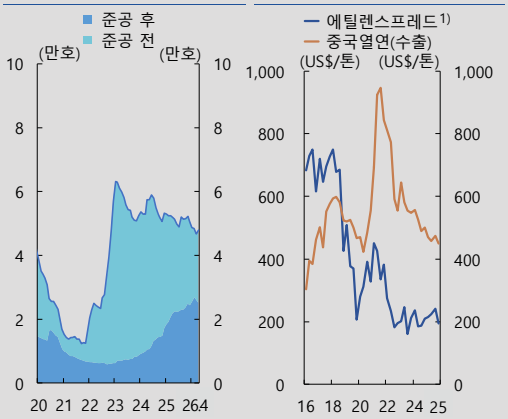
참고 2-2. 취약·주의 업종의 연간 성장성-수익성[1] 추이



주: 1) 업종별 연간 매출액증가율 및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0년 평균 대비 얼마나 높거나 낮은지를 표준편차 단위로 환산 표시
자료: VALUE Search

취약 업종들의 실적이 저하된 후 이러한 상태가 2~3년간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업종의 실적 부진은 해당 산업 내 형성되어 있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건설업의 경우 민간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준공 후 미분양물량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지방 부동산시장이 장기간 부진을 이어가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환율에 따른 원가부담 역시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과 금속제품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의 대외여건 불확실성에도 영향을 받고 있으나, 중국발 공급과잉이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온 모습이다. 석유화학과 금속제품의 일반적인 채산성을 나타내는 에틸렌 스프레드[43]와 중국산 열연 가격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이후 가파르게 하락한 후 상당기간 낮은 수준[44]을 이어가고 있다(참고 2-3).

참고 2-3. 취약 업종의 구조적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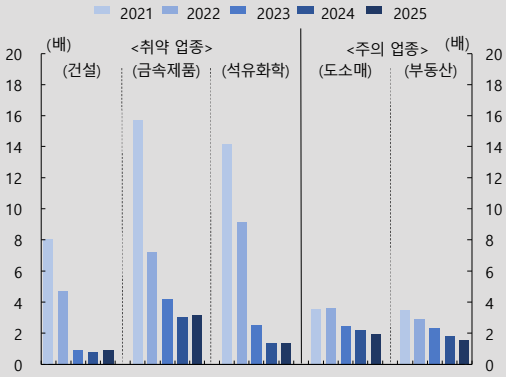
주: 1) 에틸렌 판매가격 – 나프타 구매가격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화학산업협회

취약 및 주의 업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지속

이와 같은 취약 및 주의 업종들의 실적 부진은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업종의 최근 5년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3개 취약 업종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2021년중 크게 높았다가 2022~2023년중 급락한 후 각각 3.18(2025년말 금속제품)과 1.34(석유화학) 및 0.95(건설)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개 주의 업종은 2021년에도 이자보상배율이 높지 않은 수준이었던 데다가 이후에도 소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참고 2-4).

43 에틸렌 스프레드는 에틸렌 판매가격과 나프타 구매가격 간의 차이로 석유화학 업황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통상적으로 톤당 250달러~300달러 수준이 석유화학 업종의 손익분기점으로 인식된다.
44 다만 미국-이란 중동지역 전쟁 발발 이후 에틸렌 등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확보해 둔 저가 나프타 재고를 원료로 사용한 일부 석유화학사는 제품 마진 확대로 단기 실적이 개선되기도 하였다.

참고 2-4.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자료: VALUE Search

취약 및 주의 업종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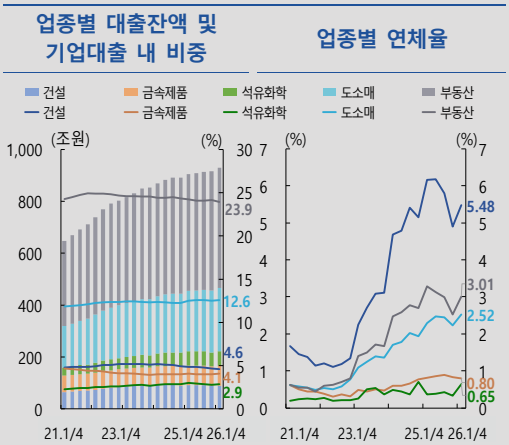
건설, 부동산 및 도소매업 등 업종의 금융기관으로의 리스크 전이 가능성 유의 필요

앞에서 살펴본 취약 및 주의 업종 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이 전체 금융기관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연체율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건설(26년 1/4분기말 기준 4.6%), 금속제품(4.1%), 석유화학(2.9%) 등 3개 취약 업종에 대한 기업대출 비중은 약 11.6%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이자보상배율의 급격한 저하 등에도 불구하고 금속제품(26년 1/4분기말 기준 0.80%)과 석유화학(0.65%)은 아직까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건설(5.48%)은 이자보상배율이 1을 하회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악화된 데다 PF 부실에 따른 우발채무 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소매(26년 1/4분기말 기준 12.6%), 부동산(23.9%) 등 주의 업종에 대한 기업대출 비중은 36.5%로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도 도소매(26년 1/4분기말 기준 2.52%)와 부동산(3.01%) 모두 전체 평균(2.09%)[45]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조한 실적 흐름(낮은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만성화됨에 따라 2021년 하반기 이후 금리상승 등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크게 작용[46]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참고 2-5).

참고 2-5. 취약 업종의 금융기관 대출 및 건전성 현황[1)]



주: 1) 업종별 기업대출 잔액 및 연체액 구분이 가능한 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사 합산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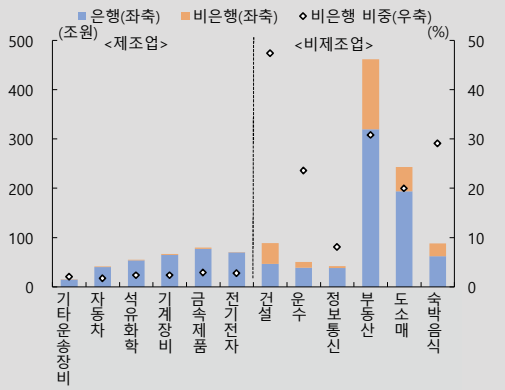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부진 업종들의 리스크를 평가해 보면, 우선 금속제품과 석유화학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인 만큼, 대내외 여건 악화 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만 전체 기업대출

45 업종별 기업대출 잔액 및 연체액 구분이 가능한 업권을 기준으로 별도 시산하였기 때문에 앞서 기술된 동향의 기업대출 연체율과 차이가 있다.
46 도소매와 부동산 업종의 2022년 이후 이자보상배율 변동을 요인(수익성, 레버리지, 이자율)별로 분해해 보면 대체로 수익성이 이자보상배율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하거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리상승이 이자보상배율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 비중이 작아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 연체율이 타 업종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인 점, 도소매 및 부동산업 등은 연체율이 비교적 높고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들 업종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높아, 부실 확대 시 상대적으로 자본완충력이 약한 일부 취약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빠르게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 2-6).

참고 2-6. 업종별 금융기관 대출금[1)]



주: 1) 2026년 1/4분기말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시사점

기업부문 리스크를 업종별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건설, 석유화학 및 금속제품 등 일부 취약 업종에서는 주로 구조적 요인의 부각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구조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조정[47]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시 과도기적인 유동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금융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소매 및 부동산 등 일부 주의 업종의 경우, 이들 업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익스포저가 크고 연체율도 전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금융기관의 각별한 자산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이들 업종이 금리 변동 충격에도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반도체 등 전기전자, 조선업 등 운송장비 등의 업종은 기업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데다 전반적인 재무상황도 양호하여 가시적인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업종별 특성 등에 기인한 잠재 리스크 요인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글로벌 수요 대응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경우 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외부 충격으로 산업 경기가 예기치 못하게 급변할 경우에는 늘어난 부채가 기업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기전자 업종은 AI 관련 글로벌 투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점[48], 조선업은 수요공급 불일치에 따른 큰 폭의 경기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47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은 에틸렌 과잉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NCC 설비의 감축과 업체 간 통폐합을 유도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금속제품(철강)의 경우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K-스틸법 등을 통해 주요 업체들의 자율적 설비조정 및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48 IMF(2026)는 AI 하드웨어의 빠른 감가상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재무제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 데이터 센터 건설 및 유지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면서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